

일제하 한국 여성의 존재형태

-1930년대 기독교 여성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윤 정 란 *

- | | |
|--------------------------------|-------------------------|
| I. 서론 | III. 절제운동의 활성화 배경과 전개과정 |
| II. 기독교 여성들의 농촌계몽운동 착수배경과 전개과정 | 1. 절제운동의 활성화 배경 |
| 1. 농촌계몽운동의 착수 배경 | 2. 절제운동의 전개과정 |
| 2. 농촌계몽운동의 전개과정 | IV. 결론 |

I. 서론

일제하 한국 여성의 존재형태와 관련된 연구는 질적, 양적으로 매우 빈약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성사와 관련된 여러 주제 중에서 여성운동사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하다. 여성운동사 연구가 활발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운동사 연구는 일제하 전시기보다는 주로 1920년대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다. 일제하 여성운동사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 연구도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 현재 1930년대 여성운동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여성노동자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이 몇편 있을 뿐이다.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으로는 서형실의 「식민지시대 여성노동에 관한 연구-1930년대 전반기 고무제품 제조업과 제사업을 중심으로-」¹⁾와 이정옥의 「일제하 공업노동에서의 민족과 성」²⁾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노동자 중심으로 여성운동사를 고찰한 것은 근우회를 비롯한 여성운동이 지하로 잠적하거나 해외로 망명함으로써 국내에서 일정한 침체상황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30년대 여성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³⁾ 그러나 1930년대

* 숭실대학교 강사.

1) 서형실, 「식민지시대 여성노동에 관한 연구-1930년대 전반기 고무제품 제조업과 제사업을 중심으로-」(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2) 이정옥, 「일제하 공업노동에서의 민족과 성」(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상황에서 기독교 여성들은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전국적인 규모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일제하 한국 기독교 여성들은 일제의 한국 강점 초기부터 민족운동과 여성운동의 전면에서 나서서 활동하였다. 1927년에는 사회주의 진영의 여성들과 연합하여 근우회라는 여성운동의 전국적 통일기관을 결성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1928년 중반 이후 사회주의 진영 여성들과 운동노선상의 갈등으로 인해 근우회를 탈퇴한 후 독자적인 운동노선을 걷기 시작한다. 즉 농촌계몽운동과 절제운동을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해나갔다. 이와 같이 기독교 여성들의 활동을 간과하고서는 1930년대의 여성운동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없다.

한편 현재 기독교 여성들이 1928년 중반 이후 전개했던 농촌계몽운동과 절제운동에 대한 연구는 개설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며, 시기적 구분없이 단지 단체와 활동을 조합하는 식으로 씌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농촌계몽운동과 절제운동에 대해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며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⁴⁾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근우회 여성 이후 여성운동의 한흐름으로서 기독교 여성들의 농촌계몽운동과 절제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독교 여성들이 근우회를 탈퇴하면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그 전개과정을 고찰한 후 이 운동의 쇠퇴와 함께 활성화된 절제운동의 시대적 배경과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편파적인 시각으로 보아왔던 1930년대 한국여성운동을 좀 더 균형있게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일제하 한국여성들의 존재형태에 대한 한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이배용, 「일제시기 여성운동의 연구성과와 과제」(『한국사론』 26, 1996) p.269.

4) 대표적인 개설서로는, 민경배,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이덕주, 『한국감리교 여성교회의 역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1991 ; 이우정, 『한국기독교 여성 100년의 발자취』, 민중사, 1985 ; 장병욱, 『한국감리교여성사』, 성광문화사, 1978 ; 정요섭, 『한국여성운동사-일제하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일조각, 1971 ; 천화숙, 「일제하 조선여자기독교 청년회 연합회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996 ;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Ⅱ, 기독교문사, 1995 ;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한국여성사』, 풀빛, 1992 등을 들 수 있다.

II. 기독교 여성들의 농촌계몽운동 착수배경과 전개과정

1. 농촌계몽운동의 착수 배경

한국 기독교 여성들이 농촌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은 1928년 중반을 전후로 한 시점이었다. 1928년 중반을 전후로 해서 시작된 농촌계몽운동은 1932년을 고비로 서서히 쇠퇴해갔지만 1930년대 중반기까지 지속되었다. 1928년 중반을 전후로 한국 기독교 여성들이 농촌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첫째 한국 교회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의식 전환에 따른 것이었으며, 둘째는 기독교 여성들의 농촌여성문제에 대한 재인식, 셋째는 사회주의 여성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독자적인 운동 노선의 선택 등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28년 중반을 전후로 하여 한국교회는 기존의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과 같은 사회봉사적인 차원에 머물던 사회의식에서 민중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⁵⁾ 즉 교회는 예수교회의 진실한 정신이란 심령의 구원과 내세의 준비에만 급급한 정신운동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개조와 구제를 위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있다고 본 것이다.⁶⁾ 이처럼 한국 교회가 사회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28년 부활절에 앞서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개최된 예루살렘 국제선교협의회에 있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전환의 촉매제 역할에 불과하였으며 실제적으로는 한국 교회 내부의 자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내부적으로 자성하게 된 것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 교회가 1920년대 들어 침체를 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⁷⁾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부심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가 현상유지에 불과한 침체를 면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다. (1) 새로운 사조의 유입에 의한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1920년대가 되면서 국내 일부 지식인들이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이념적 지주로서 사회주의 사상을 도입하자 많은 청년들이 경도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세력들은 1923년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반종교운동을 전개

5) 민경배,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p.228.

6) 『教會의 社會的 使命』, 『기독신보』, 1928년 6월 27일자.

7) 한규무, 『일제하 한국 기독교 농촌운동』(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1997) p.32.

하기 시작했다.⁸⁾ 이후 1924년에 결성된 조선청년총동맹에서는 4월 임시대회를 통해 종교문제에 대해서 “원리상으로는 부인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배척치 말고, 다만 종교가 민중을 마취케 하여 그 참다운 각성을 저해하는 피해만 일반청년에게 이해케 함”⁹⁾이라고 결정하였으며, 종교단체에 대해서 청년총동맹 가입 자격은 인정하지 않되, 전 조선 청년당대회의 결의에 나타나 있는 적대관계는 해제하기로 방침을 완화하였다.¹⁰⁾

이 때까지만 해도 종교문제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일정한 한도내에서는 인정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1925년 화요회계가 주도한 민중운동자대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운동을 일으키자고 선동하였다. 이들은 기독교가 자본주의 체도를 옹호하고, 대중의 계급적 해방을 방해하기 때문에 철저히 그 정체를 폭로하여 대중들이 그 마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이로써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2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약 3천여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제 2회 조선주일학교대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이 대회를 기회로 삼아 사회주의세력은 반기독교운동을 전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제 총독부의 사전 금지조치로 반기독교운동을 위한 강연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이 강연회는 무산되었지만 19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해 신흥청년동맹이 반기독교대회를 소집한 것을 비롯, 한양청년연맹이 1926년 1월 임시대회에서 12월 25일을 반기독데일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함남의 북청청년연합회는 1926년 2월 반종교운동을 크리스마스에 맞추어서 할 것으로 결정하는 등 반기독교운동은 고조되었다. 급기야 사회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으며, 사회주의자들은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여 일제 총독부에 의해 구형을 받기도 하였다.¹²⁾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은 기독교인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인들의 이 운동에 대한 입장은 세가지 경향으로 나타났다. ①사회주의자들이 반기독교운동을 전개한 것은 철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기독교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거나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지를 망각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의 성장 욕구와 발전의지를 더욱 향상시키기 때문에 생활측면에서 비기독교인들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¹³⁾ ②현재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반기독교운동을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8) 김창순·김준엽,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2(청계연구소, 1986) p.112.

9) 위의 책, p.145.

10) 위의 책, p.146.

11) 위의 책, pp.282~283.

12) 김권정,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숭실대 석사학위 논문, 1995) pp.23~24.

13) 위의 논문, pp.29~30.

들은 반기독교운동의 주원인이 기독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반기독교운동자들과 악수하고 나아감이 금후 교회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기독교 자체가 더욱 반성하고 폐단을 고쳐야 할 것이 시급한 의무라고 주장하였다.¹⁴⁾ ③교회의 많은 청년, 학생들이 사회주의에 동조하여 아예 전향을 해 버리는 경우였다.¹⁵⁾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었던 한위건, 윤자영, 박영선 등이 1926년 무렵에는 모두 사회주의자가 되어 있었다.¹⁶⁾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¹⁷⁾ 이와 같이 반기독교운동은 교회 전체에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으며, 새로운 대안을 찾게 하였다.

(2) 한국 경제의 파탄에 있었다. 한국의 사회 경제가 파탄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농촌 경제에 있었다. 1920년대 한국 농민의 전체 호수는 274만호이며 전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¹⁸⁾ 따라서 당시 한국은 전형적인 농촌사회였다. 곧 농촌 경제의 파탄은 한국 전체의 경제적인 파탄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한국 교회의 75%가 농촌 교회였으므로¹⁹⁾ 농촌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였으며, 교회의 문제는 바로 농촌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농민들을 위한 시책에 있었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후 한국을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재편성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민층내에는 일본인 지주와 한국인 지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자작농과 자소작농이 줄었으며 소작농이 늘어갔다.²⁰⁾ 식민지 지주제를 확립시킨 일제는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여 한국의 농촌을 더욱 파탄시켰다. 산미증식계획은 토지개량과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쌀 생산을 늘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계획이 진행되면서 농사개량을 위한 자금이 지주에게 집중되고 수리조합도 지주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주제만을 강화시켰다. 한국농민들이 생산한 쌀은 늘어났지만 늘어난 쌀보다 더 많은 양이 일본으로 들어갔으며, 한국농민들은 오히려 식량부족을 겪었다. 농민들은 농업 경영에 의한 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여 임노동이나 겸업, 부업으로 생계를 보충하였다.²¹⁾

14) 위의 논문, pp.31~33.

15) 이경도, 「조선교회 쇠퇴의 원인(속)」(『기독신보』, 1928년 4월 4일자).

16) 이준식, 「일제침략기 기독교 지식인의 대외인식과 반기독교운동」(『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3) pp.23~24.

17) 전영택, 「현대교회는 조선을 구할 수 있을까(5)」(『기독신보』, 1931년 11월 11일자).

18) 이반송·김정명 편저, 『식민지 시대 사회운동』(한울림, 1986) p.54.

19) 김양선, 『한국기독교사 연구』, 1971, p.154.

20) 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근대 민중운동사 서술분과, 『한국근대민중운동사』, 돌베개, pp.218~221.

이와 같이 일제의 농업정책으로 한국 농민들의 생활은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렸으며, 여기에 자연적 재해인 수한재까지 겹쳐서 농민들은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²²⁾ 이러한 상황에서 전 한국의 교회 중 70%를 차지하는 농촌교회는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촌교회의 위기는 곧 한국 교회의 위기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는 서둘러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했다. 따라서 192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과 농촌경제의 파체는 한국 교회를 침체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이에 대해 오인근은 교회가 사회화해야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³⁾

교회 내부에서 이러한 자성이 일어나고 있을 때 1928년 예루살렘 선교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는 한국교회가 사회문제로 의식을 전환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한국에서는 이 협의회에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가입하고 대표를 파견했다. 이 협의회에 참가한 인물은 김활란, 신흥우, 양주삼, 정인과, 노블, 마펫 등 6명이었다.²⁴⁾

이 협의회에서는 종래의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인종문제, 산업문제, 농촌문제 등에 대한 기독교의 사명과 입장을 정립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교회와 기관이 공동협력하여 조사와 연구, 토론과 지침설정, 여론조성과 교육을 비롯한 실제 사업에 걸친 연대활동을 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²⁵⁾

협의회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한국 교회에게 교회의 사회화는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해 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국내의 반기독교운동과 한국경제의 침체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교회는 새로운 길의 모색, 즉 교회가 사회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선교협의회 사회복음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확실한 진로를 결정하게 한 전환의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

한국 교회의 민중화와 실재화에 대한 인식 전환은 1929년 모트(Mott)박사의 내한을 기회로 개최된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 대회에서 실재화로 나타났다. 이 대회에서 한국사회문제, 농촌문제, 농촌사업의 발전, 사회의 기독교화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연합공의회내에 사회사업위원과 농촌사업위원이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전 한국 민족을 구할 기독교의 민중화와 실재화 등을 표방하며 기독교신우회가 결성되었으며,²⁶⁾ 기독교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기독교 농촌연구회가 조직되었다.²⁷⁾

21) 위의 책, pp.225~226.

22) 「빈궁의 원인과 그 대책」, 『기독신보』, 1928년 3월 21일자.

23) 오인근, 「기독교의 사회화를 재추흥(一)」(『기독신보』, 1927년 2월 16일자).

24) 양주삼, 「예루살렘 선교대회에 대하여」(『기독신보』, 1927년 11월 9일자).

25) 김활란, 「예루살렘 대회와 금후 기독교」(『청년』, 1928년 11월호).

26) 장규식, 「제 1 차세계세계대전 이후 기독교 사회 선교의 새로운 모색 - The Christian

이러한 한국 교계의 기독교 실제화와 민주화를 위한 실천은 당시 사회문제에서 최대의 현안이었던 농촌문제의 해결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농촌문제의 해결이 민족 문제와 교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첩경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사회 인식 전환에 따라 기독교 여성들도 농촌문제에 착수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한국 기독교 여성들이 농촌계몽운동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농촌여성문제에 대한 재인식을 들 수 있다. 이들이 농촌계몽운동에 착수하기 이전에는 도시중심의 여성지위향상 운동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28년 중반을 기점으로 도시중심에서 농촌으로 운동을 확대한 것은 농촌여성문제의 해결이 곧 진 한국여성의 문제해결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당시 농촌여성은 한국전체 여성의 80%를 차지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바로 한국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았다.

당시 한국 농촌여성은 이중적인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민족문제와 여성문제였다. 농촌여성의 문제는 민족문제와 여성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만 가능하였다. 한국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의 생활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대적인 가난에 시달리며 남부여대하여 농촌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여성은 이중적인 굴레에 시달리고 있었다.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농업정책과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은 농촌여성의 농업생산노동을 단지 부수적인 노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던 것은 밭일과 직포생산이었는데, 산미증식계획으로 농촌경제가 쌀 중심의 단작화로 진행되자 여성들의 노동생산물은 농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농회나 조합에 단독 가입한 호주만을 대표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생산한 고치나 목화 등의 판매수익은 모두 호주에게로 돌아갔다.²⁸⁾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경제의 악화는 농촌가계적자와 연결되어 농촌여성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했다.²⁹⁾

당시 농촌여성들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 이른 새벽, 전날 먹고 남겨둔 만주속반 한술을 먹은 후 호미를 들고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서 농장으로 나간다. 하루종일 더운 여름 띄약벌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먼지로 분세수를 하면서 김을 맨다. 해가 지면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짓고 부리나케 먹은 후 다시 저녁 일을 시작한다. 바느질과 다듬이질을 밤을 새우다시피 한 후 다시 새벽에 농장으로 일을 나간다.

Mission in Problems 해제-」(『The Christian Mission in Problems』,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pp.308~309.

2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17회 회록』, 1928, p.11 ; 민경배, 앞의 책, p.231에서 재인용.

28)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앞의 책, 1992, p.79.

29) 위의 책, p.83.

이것이 농촌여성들이 매일 겪어야 하는 생활이었다. 이러한 생활속에서 남성들의 뒷바라지까지 도맡아야 했다. 남성들과 일은 똑같이 하면서 아이돌보기, 밥짓기, 남성들 뒷바라지 등으로 허리꺾 사이가 없었다. 그리고 농민의 유일한 휴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절조차 농촌여성에게는 더욱 큰 고통의 날이 되었다. 가족들을 위해 옷을 해입히고 명절 음식 장만하기, 집안 손질하기, 사당 제사 제물 장만하기 등으로 평소보다 더 바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남자들은 “...술떡을 잔뜩 먹고 술기운의 기염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오면 불쌍한 여자에게 감당 못할 주정을 불이며 세간을 부수며 하여 여자의 좁은 간장을 몹시도 태워...”던 것이다.³⁰⁾ 이와 같이 농촌여성들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로 인해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의무만 있는 노동에 끊임없이 종사해야 했으며, 남성중심적 봉건관계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³¹⁾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기독교여성들은 지금 당장 교육받은 여성들이 농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만 농촌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 최용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 사회는 무엇을 요구하며 또 누구를 찾는가? 사회는 새교육을 받은 새일꾼을 요구한다. 더욱 현대 중등교육을 받고 나아오는 여성을 가장 요구하는 줄 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의 과거를 돌아보매 남성들의 다소의 노력과 활동이 있었으나 이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것은 남성들의 노력과 활동이 부족한 때문만이 아니다. 원래 사회는 남녀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선 여성들은 오천년동안 어둠 속에 가치여 사회의 대세는 고사하고 자기들의 개성조차 망각하고 말았다. 이로보아 남녀양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가 남성만의 활동과 노력만으로 원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여기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각하여 자기들의 책임의 분을 지고 분투한다면 비로소 완전한 사회가 건설될 줄로 믿는다. 중등교육을 마춘 우리들은 각각 자기의 이상을 향하여 각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제 그 활동의 첫 계단은 무엇보다도 농촌여성의 지도라고 믿는다. 나는 농촌에서 자라난 고로 현농촌의 상황을 막연이나마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절실히 느끼는 바는 농촌의 발전도 구경은 여성의 분투에 있다는 점이다. 오늘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북돋이싸인 농촌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이가 드문 것은 사실인 동시에 크게 유감된 바이다. 문화의 눈이 구 여성만 모인 농촌으로 하여금 어둠속에서 일어나오게 못한다면 이 사회는 어느 때까지든지 완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농촌여성의 향상은 우리들의 책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을 받은 우리가 화려한 도시생활만 동경하고 안일의 생활만 꿈꾸어야 옳을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맹퇴치에 노력하여야 옳을 것인가. ³²⁾

30) 이성환, 「조선의 농촌여성」(『조선농민』, 1929) pp.4~6.

31) 한국여성연구회여성분과, 앞의 책, p.93.

32) 유달영, 『농촌계몽의 선구여성 최용신 소전』(성서조선사, 1939) pp.23~24.

그리고 이들은, 농촌 문제의 해결은 여성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의 지도 아래 마을이 개혁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여성지도자의 영향은 경시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마을 지도자인 남자보다 마을의 개혁은 여성에게 달려 있을 수도 있다.³³⁾

즉 이중적 착취구조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개혁되었을 때 한국의 농촌 상황도 향상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여성들이 농촌여성문제에 대해 재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농촌계몽운동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회주의 진영 여성들과의 운동 노선 갈등으로 인한 독자적인 운동 노선의 선택을 들 수 있다. 기독교 여성들은 1920년대 중반 민족문제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진영 여성들과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1927년 1월 중순 직업 여성단체인 망월구락부 1주년 기념 모임에서 기독교 여성들은 사회주의 여성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모임을 좀 더 의미있는 모임으로 발전시키자는 안건을 수용하여 발기인과 발기총회 준비위원을 구성하였다.

이후 수 차례 모임을 가져 1927년 5월 27일 기독교여성들은 사회주의 진영 여성들과 함께 근우회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창립대회에서 한국여자의 단결을 도모하고 한국여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강령을 내걸었다.

1927년 5월에서 1928년 중반까지 1년 동안 기독교 여성들은 사회주의 진영 여성들과 힘을 합쳐 근우회 조직을 정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 시기 가장 주력했던 사업은 여성지도자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재정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금 및 자체 수익 사업, 지회 설립을 통한 전국 여성단일단체로서의 정비, 그리고 민족운동의 지원 등이었다. 이를 위해 매월 15일을 근우회 선전일로 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하였다.³⁴⁾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 여성들은 1928년 중반 이후 근우회 중앙집행부를 장악함으로써 좌익 편향적인 노선을 띠기 시작했으며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분열이 발생했다.

1928년 8월에 개최하기로 한 정기대회가 일제 총독부에 의해 취소되자 근우회 본부측에서는 교섭위원을 보내 토의안없이 대회를 개최한다는 타협을 함으로써 7월 임시대회를 허락받았다. 이를 두고 동경지회측에서는 거센 항의를 했다. 본부측과 동경지회측은 서로 팽팽한 관계를 가졌으나 결국 동경지회측이 임시대회에서 사과를 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³⁵⁾ 이 사건이 일단락되자 목포지회측에서 내부 문제를 두고 또 다시 분규를 일

33) 김활란, 『한국의 부흥을 위한 농촌교육』(이하 a 책)(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9) p.113.

34) 윤정란, 「한국기독교여성들의 근우회 탈퇴 배경에 관한 연구」(『한국 기독교와 역사』 8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1998) p.186.

35) 『東亞日報』, 1928년 7월 16일자.

으켰다. 본부측에서는 무조건 합동하라는 의견을 주장하여 목포지회 양 대표간에 서로 악수를 함으로써 해결되었다.³⁶⁾ 이와 같은 근우회 분규를 보고 사회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³⁷⁾

기독교 여성들이 사회주의 여성들과 연합하여 근우회를 창립한 것은 한국의 여성을 위한 지위 향상에 있었는데 근우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좌익 편향적인 노선과 내부 분열 등을 보이자 근우회에서 탈퇴하고만다.

기독교 여성들은 여성지위 향상이란 문맹퇴치와 경제적 독립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는데, 사회주의 진영 여성들은 체제변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로의 노선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여성들은 사회주의 진영 여성들과 연합을 했지만 근우회가 좌익편향 노선을 걷게 되자 더 이상 근우회에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기독교 여성들은 근우회내에서 사회주의 진영 여성들과 갈등을 하면서 활동하는 것보다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농촌계몽운동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운동이라는 판단을 내려 1928년 중반 이후 근우회를 탈퇴하면서 농촌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2. 농촌계몽운동의 전개과정

기독교 여성들은 1927년부터 농촌계몽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전개한 것은 1928년 예루살렘 국제 선교회 참석 이후였다. 1927년 당시만해도 문맹퇴치나 계몽 수준에 불과한 초보적인 관심에 지나지 않았던 농촌계몽운동은 1928년 예루살렘 국제 선교회에 참석했던 김활란의 귀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당시 YWCA 연합회 총무로 재직중이던 김활란은 한국 여성대표로 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는 이 대회에 참석한 후 농업국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인 덴마크 시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농촌계몽운동의 모범 답안을 얻었다.

덴마크는 달랐다. 기름지고 평화로운 그 나라의 부흥과정은 우리들의 관심을 사로 잡기에 충분했다. 두주일이나 머물면서 그 부흥의 발단과 과정을 살펴보았다. 흥병선씨는 농촌간사였으므로 그는 덴마크의 신용조합을 세심하게 관찰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힌트를 얻은 우리는 YMCA와 YWCA를 합동해서 농촌지도자 강습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그곳의 지방 고등학교를 구석구석 돌아보고 그 시설을 구경했다. 자그마한 농촌에서 큰 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살살이 다 찾아다녔다. 그 때의 그 경험은 대단히 유익한 것들이었다.³⁸⁾

36) 『東亞日報』, 1928년 7월 17일자.

37) 『朝鮮日報』, 1929년 1월 1일자.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1928년 8월 24일 우이동에서 개최된 6차 정기총회와 1928년 8월 23일부터 일주일간 개최된 제2차 남녀하령회에서 농촌계몽운동에 대한 안건이 채택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일반여자에게 부업을 어떻게 장려시킬까'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부업 즉 양잠, 직조, 고용인, 양돈 등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 때 연합회의 총지출비 880원에서 31.8%에 해당하는 280원이 농촌사업비로 투자되었다.³⁹⁾ 그리고 제 2 차 남녀하령회에서도 농촌문제와 금후대책이라는 주제하에 신흥우와 홍병선의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정인숙의 주도로 모범 농촌 실시라는 자유토론이 벌어졌다.⁴⁰⁾ 농촌계몽운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에서 연합회는 1929년 7월 23일 이화전문대강당에서 개최된 제 7회 정기총회에서 농촌부를 신설하였다. 이 때 농촌부 위원으로 황애덕과 홍은경을 위촉하여 이들에게 농촌계몽운동을 전담시켰다.⁴¹⁾

황애덕은 3.1운동이후 결성된 비밀결사조직이었던 대한애국부인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바 있었으며,⁴²⁾ 1925년 미국에 건너가 1928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농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농과에서 5개월간 특강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인물이었다. 그가 이처럼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 농촌과 여성들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잘 짜여진 농촌구조, 기계화한 영농기술, 그속에서 잘사는 미국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많은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⁴³⁾ 그리하여 1929년 1월에 귀국하여 농촌계몽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황애덕의 귀국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농촌계몽운동에 대한 그의 결의를 엿볼 수 있다.

조선에서 급한 농촌문제를 연구하다 미국 각지를 열순하고 지난 이십사일 밤 일곱시 사십분 경성역 작렬차로 귀국하였다는대 동씨는 일생을 조선농촌사업에 헌신하겠다 하며 수일 후에는 조선 각지로 농촌을 시찰하러 떠나서 약 이개월가량 순회한 후 오는 새학기부터는 협성신학교에서 실시하는 농촌사업과를 담임하야 인도하리라더라⁴⁴⁾

이와 같이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황애덕이 연합회 간사를 맡음으로써 농촌계몽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후 YWCA 연합회 총무였던 김활란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부르너 박사의 지도하에 『한국의 부흥을 위한 농촌교육(Rural Education for the Regeneration of Korea)』이란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으로써 농촌계몽운동은

38) 김활란, 『그 빛속의 작은 생명』(이하 b 책), 여원사, 1965, p.176.

39) 천화숙, 앞의 논문, p.34.

40) 『청년』, 1928년 7.8월호, pp.582~584.

41) 대한 YWCA연합회, 앞의 책, p.56.

42) 박화성, 『새벽에 외치다』(휘문출판사, 1965) pp.91~92.

43) 장병옥, 앞의 책, pp.481~482.

44) 『동아일보』, 1929년 1월 26일자.

더 탄탄한 이론적 토대위에 전개되었다.⁴⁵⁾ 이러한 과정을 밟아 기독교 여성들은 YWCA 연합회를 중심으로 농촌계몽운동을 네가지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첫째는 문맹퇴치운동과 민족의식 소생 운동이었다. 1928년부터 장로교측에서 각 교회는 개량사숙을 장려하며 조선글을 강습하는 야학을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했으며, 감리교측에서도 각 구역에서 가급적 야학부를 설치하고 지방의 문맹퇴치운동을 진작시킬 것이라고 결정하였다.⁴⁶⁾

이러한 흐름속에서 여성야학도 활기를 띠며 전개되었다. 일제하 여성야학수의 통계를 보면 일반이 195개소, 천도교·불교 계통이 13개소, 기독교계통이 107개였다.⁴⁷⁾ 이처럼 기독교계 여자야학이 많은 것은 한국의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급선무가 여성 문맹퇴치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의 글은 이들이 문맹퇴치운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를 보면 오직 특수 계급만이 글을 배화 읽을 수 있었고 다수한 사람은 구두로 인류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것을 얻어 드렸을 뿐이었습시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세계 문명국에서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시키고 장년에게 장년교육을 하여 일반적으로 글을 읽게한 것은 현대 인류사회의 새로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컨대 정말국에는 매 천명에 오직 두사람만이 문맹입니다. 이것지 감탄할 바가 아닙니까? 그러나 한국에는 매 백명의 六十명이 문맹이요 여자별로는 매백명의 九十명이 문맹이니 이것지 두렵고 참혹한 일이 아니릿가? 우리의 문화운동에 첫째단은 문자보급입니다. 위선 눈이 밝아야 인생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서책, 잡지, 신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⁴⁸⁾

즉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문맹퇴치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총인구의 80%에 이르렀는데, 이중 40%가 농촌여성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농촌 여성문제의 해결이 곧 한국문제의 해결이었다. 그러므로 즉시 여성들의 문맹퇴치에 기독교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발벗고 나서야겠다. 단잠 단배를 졸라가면서라도 문맹퇴치에 주력하여야겠다. 박 학교견은 개인마다 바랄 수 없으나 국문의 한자쯤은 알아야겠다. 문명한 나라에서는 강제교육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문맹이 퇴치되고 따라서 일용사물을 이해할만한 정도의 지식과 상식을 주게 된다.⁴⁹⁾

45) 一記者, 「조선부흥을 위한 농촌 교육 김활란씨의 박사논문 공개」(『동광』, 1932년 2월).

46) 한규무, 앞의 책, pp.106~107.

47) 최근식, 「일제시대 야학운동의 규모와 성격」(『사총』 46, 고대사학회, 1997년 12월) p.165.

48) 박인덕, 『농촌설교지침』(농촌여자사업협찬회, 1933) pp.10~11.

49) 김성실, 「조선여자 기독교 청년회 급선무」(『청년』, 1930년 1월).

이와 같은 인식하에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여성들은 문맹퇴치운동에 주력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민족의식 소생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갔다. 김활란은 덴마크가 부강하게 된 원인은 민족의식 소생운동에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當時에 落心된 丁抹(덴마크) 百姓들은 사랏스나 죽은 것과 갓하고 거러다니나 송장과 갓합니다. 남은 쌍조각마자 獨逸에 주고 丁抹國을 廢止함이 낫겠다고 落心한 사람들에게 부르짖은 말이 「너희는 먼저 丁抹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丁抹사람으로 다시 살아 丁抹의 過去를 알고 丁抹의 將來를 爲하여 싸호는 가운데 먼저 丁抹을 復活시킨 후 세계문화에 공헌이 있고 참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스리라는 교훈이었습니다.…학교를 시설하고 모든 계급으로부터 학생을 募集하여 丁抹의 文化를 가라치고 丁抹의 정신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목적을 삼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精神的 教育을 받은 百姓들 손에 政事를 委託하는 것이 진정한 민본주의요 丁抹 민족에 안전한 길이라고 主唱하였습니다.⁵⁰⁾

덴마크가 부강하게 된 것은 덴마크인들이 민족의식을 보존하고 그 토대위에서 실력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결과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인들도 민족의식 소생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말국에 모든 운동이 정신부활 후에야 이러나고 성취하였습니다. 이 정신운동에 첫거름은 곳 우리가 민족적으로 자기의식을 유지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먼저 정말사람이 되어라 한 것 갓치 우리는 먼저 조선 사람 노릇을 잘하여야겠습니다. 먼저 조선 역사에 배울만한 것을 배화알고 조선문화의 귀한 것을 알 것입니다. 시대 시대를 따라 사상, 풍속, 습관을 다소 變하여야 자라고 잘사는 것이지만 그 근본과 토대는 과거에서 차를 것입니다. 외국 사람까지도 우리 문화를 가라치 동양의 希臘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서양문화가 회람의 영향을 받은 것과 갓치 동양의 문화 중심도 조선역사에서 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士, 農, 工, 商간 모든 생활방식을 우리는 우리의 것대로 살고 문예, 방언, 풍속의 귀중한 것을 보존시키고 오직 우리의 발전을 었던 방면으로든지 안되게 하는 악풍과 폐습만 改新하여 우리의 문화를 향상발달시키십시오.⁵¹⁾

그리고 그는 새사상과 새풍조라고 해서 전부 좋은 것은 아니며 현재 한국보다 좀 더 낫다고 해서 전부 우등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만일 민족적인 의식도 없이 외국 것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한국인의 목숨만이 아니라 세계문화와 인류역사에도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역설했다.⁵²⁾ 이와 같이 아무리 문맹퇴치를 한다해도 민족의식없이 이루어진다면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다. 따라서 야학에서는 문맹퇴치운동과 민족의식 소생운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50) 김활란, 『丁抹人の 경제부흥론』(이하 c 책),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 1931, p.8.

51) 위의 책, p.36.

52) 위의 책, p.37.

이러한 야학은 지방 YWCA와 학생 YWCA에 의해 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중앙본부인 연합회보다 하부 단위의 YWCA가 여성대중들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 YWCA는 사업 자체를 소속 지역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교회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 YWCA에서는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을 농촌계몽운동 이전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지만 이후 농촌계몽운동이 시작되면서 도시 여성에서 농촌여성까지 확대해서 실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화 전문학생 YWCA, 샘골학원에서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화전문학생 YWCA 농촌부에서는 청량리와 홍제원, 창동 등지에서 문맹의 남녀 아동을 모아 가르쳤다. 홍제원에는 남녀아동이 평균 3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갑, 을 두반으로 나누어 국문, 산술, 찬미, 위생 경제법 등을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가르쳤다.⁵³⁾

다음은 최용신에 의한 샘골학원의 문맹퇴치운동을 들 수 있다. 최용신은 1909년 8월 원산에서 태어나 1928년 원산 루씨여고를 졸업하고 협성여자신학교에 다니면서 농촌사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⁵⁴⁾ 당시 협성여자신학교에는 YWCA 연합회 농촌부 간사였던 황애덕이 재직하고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황애덕은 1929년 귀국 후 한국 농촌계몽운동의 시급성을 깨닫고 협성여자신학교 교수로 봉직하게 되었다. 그는 이 학교에 농촌사업지도 교육과를 신설하여 미래 농촌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⁵⁵⁾

황애덕은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농민이 잘살아야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했으며 그중 최용신과 김노득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황애덕은 동기 방학이 되면 학생 두사람씩 짝을 지어 일곱 곳에 농촌계몽부대를 보내 실태조사를 하게 하였다.⁵⁶⁾ 최용신은 YWCA 파견교사가 되기 전에 이미 협성신학교에서 김노득과 함께 황해도 수안군 용현리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한 바가 있었다.

졸업을 1년 앞두고 협성 YWCA 대표였던 최용신은 수원 샘골의 YWCA 교사로 파견되었던 것이다. 1931년 샘골 예배당에서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문맹퇴치를 위한 공부반 운영이었다. 공부반의 교과목을 한글, 산술, 초보의 재봉, 수예, 가사, 노래공부, 성서공부로 편성하여 낮에는 아동을 가르치고 밤에는 부녀자들을 가르쳤다. 당시 학생 수는 40여명에 이르렀다.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자 학원을 인가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총독부의 거절로 힘들었다. 그러나 교회를 비롯한 사회 유지들의 도움으로 1932년 8월

53) 「지방청년회활동」, 『청년』, 1929, 9권5호, pp.75~76.

54) 『朝鮮日報』 1928년 4월 1일자.

55) 장병욱, 앞의 책, p.482.

56) 이성삼, 『감리교와 신학대학사』(한국교육도서출판사, 1975) pp.121~164.

천곡학원을 인가받았다. 천곡학원으로 인가받을 당시 학생수는 60여명으로 늘어나 3부제로 가르쳤다. 나중에는 100여명으로 학생수가 늘어났다. 천곡학원에서는 6년 과정을 2년에 마치게 하였으며 수업시간은 6시간 내지 7시간이었다. 최용신은 학생들에게 애국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동화시간에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자수시간에는 한국 지도를 무궁화로 꾸미는 것을 가르쳤다. 이러한 기독교 여성들의 운동은 문맹퇴치운동이자 민족의식 소생운동이었다.

둘째, 농촌 여성지도자 양성운동을 들 수 있다. 한국 기독교 여성들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을 전담하는 여성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애덕은 1929년 1월 미국에서 돌아온 후 농촌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 그 해 4월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는 먼저 농촌사업지도 교육과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계몽시키기 시작했다. 당시 학생들은 농촌보다는 도시를 더 선호했다. 이는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살기를 원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현재 농촌부인들로 보면 대개는 그들의 처지를 실증내고 괴롭게 생각하여 도시에 나가면 낯을 가 하고 다수한 여자가 집을 떠나 서울이나 기타 큰 도시로 모혀 듭니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좌우해 보려고 하며, 자기의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소수요, 보통은 난문제를 해결하라는 생각보다 피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도 여간해서는 농촌 살림을 벌리라고 아니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점까지 동정아니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좀 넓고 수완이 있는 남녀 청년들을 슬금 슬금 다 빠져나와 대처(大處)로 옮겨 앉습니다.⁵⁷⁾

당시 한국의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을 무시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모두 농촌을 버리고 도시를 떠난다면 민족의 장래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촌지도자를 양성하여 그 농촌에 뿌리내리고 살게 하면서 그 농촌을 모범촌으로 만드는 것이 민족의 살길이며 나아가 농촌여성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가장 선결문제가 농촌주부들을 교양시켜 가정에 대한 애착심과 농촌 생활에 흥미를 붙여 희망을 가지게 한다면 온가족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농촌 가정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⁵⁸⁾

이를 위해서는 농촌여성 지도자가 있어 자기가 사는 농촌이나 혹은 이웃 농촌 하나를 전담해서 그곳 부녀자들을 가르치고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농촌 마을을 합하여 농촌 여성들을 위한 수양소를 세워 이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 분명 농촌은 살기 좋은

57) 박인덕, 앞의 책, p.14.

58) 위의 책, p.15.

곳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⁵⁹⁾ 따라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촌 여성지도자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황애덕은 농촌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실체화가 농촌사업지도교육과의 설치였다.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통해 농촌문제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이들을 계몽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방학이 되면 학생들을 두사람씩 짝을 지어 농촌실습을 하도록 했다.⁶⁰⁾

황애덕이 이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농촌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한편, YWCA 연합회에서는 농촌부녀지도자 양성소를 세워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 농촌부녀지도자 양성소는 김활란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였다. 그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인 『한국의 부흥을 위한 농촌교육』에서 여성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개혁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여성지도자를 위한 같은 목적의 강습회가 동시에 운영되어야 한다. ...여성의 지도 아래 마을이 개혁되어가는 것을 볼 때 여성지도자의 영향은 경시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마을 지도자인 남자보다 마을의 개혁은 여성에게 달려 있을 수도 있다. 꼭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은 마을에서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현대적인 프로그램은 공동영도력을 인정해야 한다.⁶¹⁾

즉 농촌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여성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1934년 농촌부녀 지도자 양성소가 설립되었다. 이 양성소는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농촌에 사는 부녀로서 한글을 보고 쓸 수 있는 자로 제한하였다. 교육기간은 약 한달이었으며,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그리고 교육을 마치더라도 지방청년회와 YWCA 연합회와 계속 연락을 취하도록 해서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이는 한달동안의 교육으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하에서 나온 방안이었다. 수양소의 목적은 “짧은 기간에 무엇을 원만히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지식을 얻고져 하는 욕구심을 가지게 하고, 그들이 이미 가진 것을 개선하고 싶게 하고, 없는 것이면 개척하고 싶게 즉 하고싶은 맘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농촌수양소의 원목적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만 잇으면 할 방도는 스스로 뚫을 수 있습니다”⁶²⁾라는 것으로 농촌여성지도자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을 때

59) 위의 책, pp.15~19.

60) 황애덕은 105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바 있는 감리교회 안경록 목사로부터 황해도 수안과 신원, 곡산이 인접해 있는 용현리를 소개받았다. 1929년 여름 방학에는 수안, 수원, 신계, 곡산, 예산으로 각 책임 학생을 파송시켰다. 윤혜영, 「기독교 여성민족운동가 황애덕에 관한 연구-일제시대 활동을 중심으로-」, 감리교 신학대 석사학위논문, 1997, p.66.

61) 김활란, a 책, p.113.

62) 박인덕, 앞의 책, p.17.

창의를 가지고 하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었다. 주로 농촌 여성지도자에게 교육하는 것은 의식의 소생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정상식, 요리, 재봉, 세탁, 육아, 가정위생, 가정부기, 역사, 지리, 동요, 동화, 유희, 가정 부업 등이었다.

1932년 11월 YMCA 연합회에서 문을 연 농촌수양소의 강좌가 농촌에서 실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비해 농촌여성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이러한 남성들의 업무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좌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설립 목적에 있어서도 “모르는 것을 배워 알고 미신을 버리고 옳게 살고자 하며 쓸데없는 예식이나 형식을 버려 경제적 여유를 도모하며 아름답고 재미있고 간단하게 살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YMCA의 농민수양소의 목적은 “...농촌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생에 대한 희열과 노력과 향상의 정신을 주며 농업의 지식을 주며 농가부업과 수공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당시 기독교인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고하에 농촌지도자를 양성했던 것이다. 농촌여성의 역할이란 육아와 가사 노동의 근대화를 달성하는 것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농촌여성지도자의 양성도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루어졌다.

세제, 다른 기독교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촌계몽운동은 주로 YWCA를 통해 전개되었는데, YWCA 연합회는 1929년 7월 23일 7회 정기총회에서 농촌부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예루살렘 선교 대회 이후 각 교단별로 농촌계몽운동을 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신설하였는데, 그중 장로교에서 가장 먼저 총회내에 농촌부를 신설하였으며, 이어 북감리교에서는 농촌사업위원회를 1928년 10월에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교단별로 연이어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실행위원회가 설치되어 운동이 진행되자 이를 통합하여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1929년 9월 25일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주최로 농촌사업협동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농촌사업협동위원회는 여섯 선교회 대표 각 1명, 장로총회 대표 2명, 남북감리연회 대표 각 1인, 남녀청년회 대표 각 2인, 연합공의회 대표 3인 총 15명으로 조직하고 협동총무로 미국 농사전문가인 클락(F. O. Clark)을 임명하여 농촌계몽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농촌사업협동위원회는 농사강습회를 1929년 12월 대구에서 시작하여 1932년 초까지 진행하였다.

기독교 여성중에서 김성실이 이 농사강습회에 참가하여 가정 과목을 전담하여 가르쳤다.⁶³⁾ 즉 YWCA연합회는 다른 기독교 단체와 연합하여 적극적으로 농촌계몽운동에 가담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YMCA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

63) 『기독신보』, 1930년 2월 19일자.

하였다. 최순옥은 장로교회에서 개최한 농사강습회에서 농촌가사 강목을 맡아 강사로 일하기도 했다.

네째는 농촌여성들의 생활개선운동이었다. 기독교 여성들은 조리법 개선운동, 부엌 개선운동, 적절한 배수와 하수도 개선운동, 도로관리 개선운동, 시멘트로 우물 만들기 운동, 질병 예방운동, 파리 모기박멸 운동 등의 농촌 위생사업을 통해 농촌 여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계몽 운동을 벌였다.

1928년 공식 통계상 한국인의 일반사망율은 천명당 22.75명이며, 그 중 어린이의 사망률은 1,000명당 180명 이상이었다. 이처럼 높은 사망률의 원인은 전염성 열병인 홍역, 성홍열, 디프테리아 25%, 장염 전염병인 이질, 설사 24%, 부적당한 음식이나 영양실조에 의한 소화불량 20%, 호흡기 감염 14%, 말라리아 14% 등이었다.⁶⁴⁾

한국의 성인들도 여러 종류의 전염병인 이질,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있었다. 이렇게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때문에 전염병이 만연하였으며, 만일 병에 걸리더라도 이를 치료할만한 기관이 거의 없었다. 당시 한국의 병원, 의사, 간호원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대식 병원은 인구 160,000명당 1개도 채 되지 못하고 인구 10,000명당 의사 1명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와 간호원은 도시에 있었으므로 농촌지역에는 의료시설이 거의 없었다.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촌에 적절한 의료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보건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농촌 사람들은 대다수가 병에 걸리면 점쟁이나 다른 형태의 민간 요법에 의존하였으며, 간단한 치료방법조차 모르고 있었다.⁶⁵⁾ 따라서 위생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공식집계에 의하면 한국에는 30개의 주요도시와 읍에만 수도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수도시설이 있는 곳조차 가난한 사람들은 수도 사용료를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작은 읍과 마을에서는 급수로 우물, 샘, 냇물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물은 하수도 시설의 부족 때문에 거의 오염되어 있었다. 서울시조차 완전한 하수도 시설이 없었다. 노출된 하수도나 시궁창은 집마당, 길, 우물 근처 등에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균이 번식하고, 파리나 모기와 같은 전염병 매개체가 시궁창을 빈번히 왕래하였다. 그 결과 음식 특히 야채가 오염되어 장내에는 기생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657개 마을과 지방을 대상으로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인구 1천명당 904명이 폐에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의 25%가 11세에서 20세 사이였고 22%가 21세에서 30세 사이였다. 그리고 식생활 습관과 가난 때문에 50%의 인구가 영양부족이었다.⁶⁶⁾ 이와 같이 여러 가지

64) 김활란, a 책, p.11.

65) 위의 책, p.12.

전염병과 영양실조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는 농촌에 대해서 기독교 여성들은 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농촌여성들에게 위생과 건강에 대한 상식을 가르쳐, 농촌가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었다.⁶⁷⁾ 기독교여성들은 한국인구의 80%를 점하고 있는 농촌민들의 가정 하나 하나가 근대적인 가정이 된다면 그것이 곧 한국인들의 실력을 양성하는 길이며 이는 독립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III. 절제운동의 활성화 배경과 전개과정

1. 절제운동의 활성화 배경

일제 식민지하 한국에서의 절제운동은 1911년 1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도한 사람들은 한국내의 외국선교사들이었다. 당시 한국내에 있던 외국선교사들이 만국여자기독교절제회⁶⁸⁾ 외국지부를 설립하고 1년간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사업내용은 첫째 금주, 단연, 청결에 관한 소책자의 발행, 둘째 논문 현상 공모 등이었다. 논문현상은 1912년에 '깃연의 피해'라는 주제로 공모하였는데, 33명이 지원하였으며, 그 중 장로회 학생이 1등상을 받고 감리교 학생이 2등상을 받았다.⁶⁹⁾

이외에 장로교계에서 1913년 평양, 황주 등 기타 각지에서 깃연회를 조직하였는데, 사업내용은 주로 대금을 모아 각지에 전도인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그 후 1919년 장로교 제 8회 총회에서는 허가받은 의사만 병원에서 아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를 사용 혹은 매매하면 반드시 당회에서 치리한다는 내용을 결의한 바가 있었다.⁷⁰⁾ 이와 같이 1910년대의 절제운동은 부분적으로 시작되고는 있었지만 본격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절제운동은 기독교 여성들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기독교 여성들이 이 때부터 절제운동을 본격화한 것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당국은 표면적으로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실제

66) 위의 책, pp.12~14.

67) 박인덕, 앞의 책, p.37.

68) 여자절제운동은 1874년에 미국에서 처음 여자기독교절제회가 성립된 후 1883년에 본회 활동가인 프란시스 윌나드 양이 널리 세계 각지에 절제회를 조직하여 만국 여자기독교 절제회 연합회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전마대, 『여자절제운동』,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성광문화사, 1979, p.150).

69) 전마대, 위의 글, p.150.

70) 송상석,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p.147.

적으로는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득을 위해 일본식 퇴폐문화를 이식, 만연시켰다. 중독성이 강한 술, 담배, 아편 등의 기호품들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공창제도를 도입하여 퇴폐문화를 조장했다. 이러한 퇴폐문화의 이식은 한국인의 문화와 정신을 말살시키는 것이었다.⁷¹⁾

이와 같은 문화와 정신적 침략인 퇴폐 문화 이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이들이 기독교 여성들이었다. 기독교 여성들은 이 운동을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24년 8월에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를 조직하였다.⁷²⁾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는 만국 연합회 총무 터링과 손메레의 순회 강연이 촉발제가 되어 조직되었다. 터링은 한국에 6개월간 머물면서 1923년 9월부터 서울, 평양, 개성, 해주, 원산, 광주, 대구, 재령 등지를 순회하며 강연을 통해 절제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손메레는 1년동안 16지방 지회와 1,508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절제운동은 활기를 띠게 되어, 외국선교사들에 의해 조직된 만국여자기독교절제회 외국지부가 조직 준비를 하여 기독교 여자금주회로 다시 태어나고⁷³⁾ 한국 기독교 여성들로만 구성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연합회가 조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의 임원으로는 회장에 유각경, 부회장 김선, 총무 손메레, 서기 문인순 등이 선출되었다.⁷⁴⁾

이후 여선교사들의 기독교 여자 금주회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는 서로 통합하여 조선여자금주회로 거듭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기독교여성들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로 다시 독립하였다.⁷⁵⁾

1924년 창립 당시 16개 지회 1,508명의 회원을 시작으로 출발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는 1928년에 이르자 지회 수 53개, 회원 수가 3,217명에 이르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⁷⁶⁾ 그 후 1929년 총무 손메레가 근우회 사건으로 절제회 총무직을 사퇴하자 이효덕이 그 뒤를 이었다. 절제운동은 기독교 여성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상태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2년에 들어서면서 절제운동은 전기독교 여성들의 성원하에 여성운동의 큰

71) 이덕주, 『한국감리교 여선교회의 역사(1897-1990)』, 1991, p.260.

72) 『기독신보』, 1924년 9월 10일자.

73) 『기독신보』, 1923년 10월 17일자.

74) 『기독신보』, 1924년 9월 10일자.

75) C. Ervin, "Mrs. Mary Soo of W.C.T.U", KMF, Jan., 1928, p21 ; 이덕주, 앞의 책, p.262 재인용.

76) 『기독신보』, 1928년 8월 29일자.

대세를 이루게 된다. 그것은 1928년 중반이후 시작된 기독교 여성들의 농촌계몽운동이 1930년대 들어 쇠퇴하면서 절제운동이 활성화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여성들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를 통해 독자적으로 절제운동을 전개해오다 1931년 9월 19일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에 가입하면서⁷⁷⁾ 이 운동을 전민족적인 차원으로 활성화시켰다. 이에 대해 『기독신보』는 사실을 통해 “근자에 와서 경성을 비롯하여 조선각지에 금주운동이 일어남은 충심으로 기뻐할 일이다”⁷⁸⁾고 보도했다.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에 가입하여 전교회 차원으로 절제운동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그동안 성인중심의 절제운동을 아동까지 확대시켰다. 즉 1932년 소년소녀절제부를 조직하고 1933년 영아절제부를 조직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여성들에 의한 절제운동의 활성화는 기독교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1932년 조선기독교 절제회가 창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⁷⁹⁾ 그동안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남성들의 절제운동은 이로써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1932년을 기점으로 기독교 여성들은 절제운동으로 운동노선을 전환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내외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일제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으로 인한 기독교 여성들의 농촌운동 쇠퇴를 들 수 있다. 즉 농촌운동 쇠퇴로 인해 새로운 운동을 모색한 결과 나타난 것이 절제운동의 활성화였다.

일제 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 7월 우가키(宇垣)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후 입안, 발표된 농업정책이었다.⁸⁰⁾ 농촌진흥운동은 1929년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농업공황을 맞이한 일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서 전개했던 농촌정책이었다.

세계대공황은 일본 공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던 섬유공업, 금속공업 및 기계공업 등에 극심한 타격을 줌과 동시에 농산물가격을 폭락시킴으로써 일본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일본 독점자본가와 지주계급이 공황의 손실을 일본노동자와 농민에게 떠넘기자 이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러자 일제는 새로운 시장을 구하려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방책으로 1931년 만주를 침략했다.

일제는 만주를 침략하면서 한국을 침략전쟁의 전진기지로 이용함과 동시에 공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한국인에게 떠넘기려 하였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해 민족해방운동이 고조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촌을 갱생시켜야

77) 『기독신보』, 1931년 9월 23일자.

78) 『기독신보』, 1933년 2월 22일자.

79) 『기독신보』, 1932년 5월 25일자.

80)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93) p.53.

했다. 그리하여 1932년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1932년 7월 우가키 총독은 도지사 회의 석상에서 농촌진흥운동의 취지와 방침을 밝히고 곧 각 도지사에게 〈농어촌의 진흥에 관한 건〉이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하면서 운동은 시작되었다. 이 지침서는 農道本義, 道義精神의 진작이라는 기본 이념과 운동을 지도할 각급 〈농촌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자연마을을 단위로 운동을 실행할 〈마을진흥회〉 조직의 촉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⁸¹⁾

이 지시에 따라 진흥운동조직은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조직되었으며, 1933년말에는 그 수가 29,383개에 이르렀다. 진흥운동은 초기에 생활개선사업인 ‘색의 보급’, ‘관혼상제의 간소화’, ‘단발장려’, ‘금주금연’, ‘도박금지’, ‘미신타파’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⁸²⁾

이러한 생활개선사업은 당시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던 민족주의자들의 농촌계몽운동에 대한 열기를 희석시켰다. 그리고 농촌계몽운동을 하던 기독교 농촌운동가들에게는 이 운동을 그만둘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 당시 농촌운동을 주도하던 신흥우는 “...우리가 방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파출소 순사가 우리 농촌지도자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우리가 농촌사업을 하지말라고 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윤치호씨와 의논해가지고... 차츰 차츰 사업을 줄일수밖에 없었습니다...”⁸³⁾라고 회고했다.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의 농촌운동 방해로 기독교인들의 농촌운동은 점차 쇠퇴하여 갔으며 기독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농촌운동을 전개하던 기독교 여성들의 농촌운동도 마찬가지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인덕에 의해 농촌여자사업회가 조직되고, 농촌부녀지도자수양소가 세워졌지만 오랫동안 버틸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국제선교위원회에서 한국교회에 지원되던 선교비도 점차 감소하여 재정난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예를 들면 수원부근 샘골에서 농촌운동을 벌이고 있던 최용신의 활동경비를 1933년 YMCA 연합회에서는 그것을 절반으로 줄였고 1934년에는 그것마저 중단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일제총독부의 농촌운동방해로 1932년을 기점으로 기독교 여성들의 농촌운동이 점차 쇠퇴해졌다. 그러나 기독교 여성들은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다른 운동을 모색하였다. 그것은 곧 절제운동의 활성화였다.

81) 양영환, 「1930년대 조선 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숭실사학』 제6집, 숭실대학교 사학회, 1990) p.126.

82) 위의 논문, p.127.

83)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정음사, 1978) p.400.

둘째는 1928년 중반 이후 다시 전개된 사회주의자들의 제 2차 반기독교 운동과 1930년대 초반 신비주의적 소종파운동의 발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1932년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가 “사회신조”를 채택함으로써⁸⁴⁾ 기독교 여성들의 절제운동이 활성화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1920년대 중반에 민족주의자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잠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접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이 되면서 그들은 다시 2차 반기독교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1920년대 후반부터 반기독교운동에 나선 것은 코민테른의 좌경화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1928년 7~8월 동안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코민테른 6차 대회 결의서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이 대회에서 ‘식민지·반식민지 제국에서의 혁명운동에 관하여’라는 테제를 결의하였는데, 그 내용중 36항에 한국공산주의운동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 내용은 주로 한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적 단체속에 들어가 정력적으로 혁명적 계몽활동을 하여 민족개량주의 지도자를 고립시키고 그 단체속에 속해 있는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민족개량주의 지도자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⁸⁵⁾

종래 코민테른 결의서에서는 민족주의 단체를 그 대표자와 함께 민족적 혁명투쟁으로 끌어들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코민테른 6차대회에서는 기존의 노선을 완전히 전환한 것이었다. 즉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이 위로부터의 통일전선전술이었던 것에 비하여 이제는 밑으로부터의 통일전선전술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리고 코민테른에서는 한국 공산주의자들이 파쟁을 청산하고 노농조직에 기초를 둔 공고한 공산당을 조직할 때까지 물질적 원조를 일체 단절하고 4차 한국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결의를 했다. 이 대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은 서울파의 김영만, 상해파의 이동휘 등이 ML파의 조선당을 부인하고 자파의 당존재를 주장했기 때문에 국제당대회에서는 일국일당주의에 따라 그 당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과거의 조선공산당은 파벌투쟁으로 운동 역량이 부족하므로 승인을 취소하고 해산을 결의한다고 했다. 이에 양명이 코민테른 중앙위원회 정치부에서 최후 결정을 하기 전까지 조선공산당에 대한 승인 취소 해산 결의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설명서를 5개항으로 작성하여 국제공산당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28년 12월 중앙위원회 정치부에서는 한국 공산당을 취소하고 해산결정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에 12월테제였다.⁸⁶⁾

12월 테제는 코민테른 6차대회에서 표명한 한국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방침을 그대로

84) 전택부, 『한국에큐메니칼운동사』, pp.140~141.

85) 村田陽一 編譯, 『コミンテルン 資料集 4』(大月書店, 1981) p.444.

86) 김준엽·김창순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청계연구소, 1986) p.335.

고수하였다. 이 테제에서는 과거의 조선공산당이 지식계급과 학생뿐인 인텔리 중심의 당이었다는 사실을 들고 이제는 공업노동자, 빈농을 당원으로 획득하여 조선공산당을 재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구태의연한 우유부단함을 폭로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의자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자가 일본 제국주의 및 대지주에 대한 항쟁에서 무정견(無定見)함을 공표하고 이와 치열하게 항쟁해야 한다”고 표명했다.⁸⁷⁾ 한국 사회주의자들은 12월 테제에 따라 좌경화 노선을 걷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노선은 민족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선상에서 전개되었다. 12월 테제로 좌경화 노선으로 전환한 사회주의자들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자 혁명이 도래했음을 보다 더 확신하기 시작했다. 이는 코민테른의 국제정세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코민테른에서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체제와 국제노동운동의 양상이 세시기로 구분되어 전개된다고 파악하였는데, 즉 제 1기는 1921년에서 1923년까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매우 고조된 시기로서 프롤레타리아의 직접적인 혁명을 위한 행동의 시기로 파악했으며, 제 2기는 독일 혁명의 실패로 시작된 1923년부터의 시기로 자본주의 체제의 부분적인 안정기로 보았다. 그 후 제 3기에 이르면 생산력의 성장과 협소화된 시장의 모순으로 인해 자본주의체제는 심각한 위기의 상태가 되어 거대한 계급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안정을 붕괴시켜 자본주의 체제가 전반적인 위기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⁸⁸⁾

이러한 코민테른의 제 3기론에 한국사회주의자들은 1929년 세계대공황이 발생하자 코민테른의 견해인 제3기가 1928년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확신하였다. 이 세계대공황은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주기적 공황이 아니라 자본주의 제도의 붕괴과정이며, 자본주의 체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공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⁸⁹⁾

사회주의자들은 코민테른의 지시와 일련의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민족주의자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민족주의자들의 비혁명성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 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 ①1920년대 초중반 종교기능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을 가한 것에 대해 이 시기에 들어서면 종교본질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종교존재의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였다. ②반종교투쟁을 정치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해야 하며 ③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을 할 때 반종교 운동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써 기독교

87) 위의 책, p.347.

88) 村田陽一 編譯, 앞의 책, p.302.

89) 임경석, 「세계대공황기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역사와 현실』 11, 1994) p.27.

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⁹⁰⁾

그들은 이러한 반기독교 운동의 논리에 따라 당시 기독교계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농촌계몽운동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였다. 이들은 농민들이 궁핍하게 된 것은 일본제국주의와 민족개량주의자들 때문인데 기독교인들은 단지 '무지'와 '기독교적 사랑'의 결핍을 내세움으로써 실제 원인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농촌계몽운동은 일제의 지배구조와 조선의 계급적 모순 구조를 더욱 강화,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었다.⁹¹⁾

이러한 반기독교운동에 대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철저한 반박을 통해 오로지 기독교만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1차 반기독교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아예 사회주의자로 전향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2차 반기독교운동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를 단호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기독교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⁹²⁾

한편 반기독교운동이 거세게 전개되는 동안 기독교 내부에서는 신비주의적 소종파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한국교회는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 농업공황으로 인한 농촌계몽운동의 무력화 등으로 인해 신앙의 활력을 상실한채 침체기를 맞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신비주의적 소종파운동이었다. 신비주의적 소종파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이용도, 황국주, 유명화, 한준명 등이었다. 이들은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면의 세계에 강조를 두며 경건에 이르는 강력한 훈련이 주된 관심사였다.

1929년부터 시작된 이용도의 부흥회는 1931년에 이르자 거의 절정에 달했다. 평양중앙교회, 재령동부교회, 경남거창교회, 북간도용정교회, 국자가 교회, 투주거우교회, 평양남문밖교회, 함남 영무수양회, 황해도 은율교회, 선천남교회, 북교회, 아현성결교회, 경남 통영교회, 사천교회, 충북진천교회, 서울삼청동교회, 중앙전도관, 인천내리교회, 개성남부교회, 화천교회, 평양명춘교회, 산정현 교회 등 가는 곳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1932년에도 계속 부흥집회를 열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절대적인 가난속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던 한국인들은 현실도피적인 경향으로 나아가고 신앙은 현실 긍정이나 사회구원이라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후퇴하여 자기혼자의 영혼 구원에만 몰입하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⁹³⁾

90) 김권정, 앞의 논문, pp.34~36.

91) 위의 논문, p.40.

92) 위의 논문, pp.49~50.

93) 이영현, 『한국기독교사』(컨콜디아사, 1978) p.178.

이용도 외에 유명화의 접신극사건, 황국주의 예수자처사건 등 신비주의적 소종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소종파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 벽파생은 “수천년 역사를 두고 그들이 기대하여 오던 기독교는 오직 평양의 일무식부인의 탈을 쓰고 군림하게 되었으니 모든 기독교도들은 그의 발 아래 부복하여 참회의 눈물을 뿌려 죄를 회개함으로써 천국을 몽상하는 동시에 천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급급하였던” 이 사건은 오직 한국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였고, 이 정신병자를 신으로 신봉하고 그 앞에 부복하여 눈물을 흘린 자들이 주로 목사와 장로 등 중요한 교역자와 남녀중등학생 또는 모전문학생, 신학생 등 근대교육을 받은 자가 대부분이요, 뿐만 아니라 사립중학교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까지 섞여 있었다며 놀라움을 표시하였으며 이것은 기독교가 사선위에서 광무하는 발악의 형태라고 하였다.⁹⁴⁾

이와 같은 신비주의적 소종파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 교회에서 제제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신비주의적 소종파운동과 전술한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은 한국 교회의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사회신조’ 천명이었다.

사회신조는 반유물주의를 채택하고 오로지 기독교만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는 점을 표명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사회신조’ 천명은 당시 농촌계몽운동이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쇠퇴하지 이를 대신하여 절제운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연결되었다. 즉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사회신조’는 기독교여성들이 전개해 오던 절제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셋째로는 1930년대초 도시화의 발달을 들 수 있다. 도시화의 발달은 퇴폐문화의 확대를 야기하였으며, 이것은 기독교 여성들이 주도하던 절제운동을 활성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1920년대까지 일제 당국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은 주로 일본상품의 독점적 판매시장 및 식량원료의 공급지로서 농업중심 정책이었으며, 공업화 정책에는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일본자본이 한국에 진출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었다. 그런데 1930년을 전후로 일제는 식민지 한국에 대한 정책을 농공병진정책으로 전환시키면서 공업화 정책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독점자본이 한국에 대거 진출하게 된다. 일본독점자본의 진출은 농촌중심의 한국을 점차 도시 중심의 한국으로 변화시켜, 도시의 발달을 가져왔다.

일제 당국이 1930년을 전후로 공업화 정책에 적극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1929년의

94) 벽파생, 「평양에 발생한 기독교계립 사건 정세」(『신계단』 1, 1933년 2월호).

세계 대공황 때문이었다. 일본 경제는 1927년 금융공황으로 대타격을 받고 수습을 하고 있던 중 1929년 세계대공황이 일어났다. 세계대공황은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공황을 동반하여 米價 하락으로 일본 농촌 경제를 마비시켰다. 따라서 그동안 식량공급지로서 한국에 대한 농업중심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쌀 증산 정책이 필요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독점자본은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잉자본의 새로운 투자지가 필요하였다. 일본 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상대적 안정기에도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내 인플레이 정책에 의하여 겨우 그 활동을 지속하여 왔으나 1927년 금융공황으로 인해 과잉으로 치닫자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한편 카르텔, 콘체른 등 독점을 강화하였다. 은행, 회사자본 증감추세를 보면 1926년을 100으로 할 때 신설증자는 1927년의 98.6에서 1930년의 133.7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단적으로 일본내에 새로운 투자시장을 원하는 과잉자본이 축적됨과 동시에 새로운 투자시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침략전쟁도 일으키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일본 독점자본이 한국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유희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제공황이후 한국 농촌민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 없어 만주와 일본 등지로 유랑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일본독점자본이 이용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본 독점자본이 1920년대 후반부터 진출하기 시작하자 한국의 경제는 공업 중심으로 점차 나아가게 되고 이에 따라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도시의 발달은 필요악으로 퇴폐문화의 확대를 가져왔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퇴폐문화가 확대되자 기독교 여성들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전개하던 절제운동을 전교회 차원으로 활성화시켰던 것이다.

2. 절제운동의 전개과정

1932년 이후 절제운동은 좀 더 구체화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확대 적용시키는 운동으로 발전한다. 이 운동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주금연 운동을 들 수 있다. 기독교 여성들이 전개했던 절제운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이 운동이었다. 이에 대해 이효덕이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창립된 이후…간접으로 직접으로 제가 듣기는 이 회 명칭은 금주회라고 알게 되었습니다”⁹⁵⁾라고 한 것처럼 금주금연운동은 절제운동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다.

95) 『기독신보』, 1933년 1월 18일자.

전통사회에서 술은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 이용되었다. 농경사회에서의 작업은 해 뜨기 전부터 해지기 전까지였기 때문에 유일한 휴식시간이라는 것은 밥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뿐이었다. 따라서 다음의 노동을 위한 휴식은 작업현장 즉 논과 밭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도중의 음주도 작업현장에서 해결되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해체되고 공장이 들어서면서 도시 중심의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술은 작업장에서 금지되고 그 대신 작업장 바깥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면서 술은 노동의 영역에서 여가의 영역에 포함되어 다른 형태의 여가활동과 결합하여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식민지하에 있던 한국 사회는 일본제국주의 경제 체제에 편입됨에 따라 전통적인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도시 중심의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독립된 산업으로서 음주산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음주산업은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어가면서 다른 퇴폐적인 문화도 양산하였다. 당시 기독교 여성들은 이와 같은 음주문화가 점차 확대되어가자 이를 근절시켜야겠다는 사고를 하게 되었다. 민족의 독립이 최우선이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문화는 백해무익하다는 사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1920년대 초중반에는 금주와 금연을 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국가의 사례를 많이 소개하는 정도였다. 당시 소개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핀란드,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이었으며, 이중 미국에 대한 소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미국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금주를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주운동⁹⁶⁾은 이미 남북전쟁 전부터 전국민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법, 주헌법으로 주류의 제조 판매를 금지한 주의 수는 1차대전까지 10여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1919년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토내에서 알코올 음료를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 헌법수정 제18호가 연방의회를 통과, 각 주의 승인을 얻어 1920년 1월에 발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금주법은 결과적으로 보기 드문 악법이 되었다. 이 법률 때문에 술을 밀수, 밀송, 밀매하는 갱이 날뛰게 되었으며, 이른바 광란의 20년대, 또는 무법의 10년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낳았다. 1920년에 시작되어 1933년에 공식적으로 끝난 이 금주법의 시대에 미국은 각종 독직사건으로 얼룩졌으며, 이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도시에서는 무허가 술집이 속출하였다. 또한 갱끼리 죽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엽기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던 것이다.⁹⁷⁾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공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주로 소개된 내용은 범죄율이 감소되어 건전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버지아주

96) 후스토 L 곤잘레스/서영일 역, 『현대교회사』, 1987, pp.374~375 참조.

97) 박재환, 「술, 노동, 커뮤니케이션」(『술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9) pp.35~36.

취리몬드시는 금주하기 전에 술로 인한 부정행위자가 3,065명이었는데, 금주 후에는 1,424명으로 감소하였고, 기타 다른 범죄도 눈에 띄게 줄었으며, 반면 은행 자금은 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소개하였다. 이외에 미국의 뉴욕주, 오하이오주 등 기타 다른 미국 주의 금주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독신보』에 실었다.⁹⁸⁾ 이외에 러시아에서도 금주를 함으로써 범죄가 감소하고 그 대신 공장의 생산율과 노동율이 증가하였다고 소개하면서 금주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⁹⁹⁾

이러한 금주로 인한 범죄율 감소의 효과 외에는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금주금연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시카고에서는 금주를 한지 결핵병으로 죽은 사람이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 등이었다.¹⁰⁰⁾ 1920년대 초 중반에는 금주와 금연을 하면 사회의 범죄율이 감소하고 병자가 감소한다는 것 등을 들어 그 효과를 주장하였으나 1920년대 후반 이후가 되면 금주금연 운동의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29년 세계대공황과 함께 찾아온 농업공황으로 인해 남부여대하여 만주, 일본 등지로 유랑하는 한국인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등 그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정신적인 좌절감으로 연결되었다.

최근 수년에 와서는 정치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처하여 있는 동시에 軟文庫의 영향을 받아서 청년층에 더욱이 음주가 많이 증가하여 오든 중 삼사년이래 경제의 공황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을 물론하고 중산계급의 몰락으로 파산자 수가 격증하고 실업군이 다수가 생겨서 대자본가나 대지주들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대중의 생활이 불안하여져서 민심이 소란한 가운데 나날이 생활에 고통이 심하여감으로 인하여 일반 무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낙망하고 자폭자기하야 자연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가 많아졌다. 민중의 생활의 고통이 심하여질수록 그들은 임시적이거나 자기의 번민과 고통을 이겨바리기 위하여 음주하는 자가 점점 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에 와서는 조선안에서만 삼백만석이라는 다량의 술을 소비하게 되었다.¹⁰¹⁾

기독교 여성들은 이와 같이 한국인 전체가 점차 앞날의 희망을 잃고 좌절되어가자 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즉 민족의 독립이라는 것도 삶의 희망에서 출발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가정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한국인의 가정이 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¹⁰²⁾ 따라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자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금주금연운동부터 실천하자고 주장했다.

98) 『기독신보』, 1922년 6월 7일자, 6월 14일자, 8월 16일자.

99) 『기독신보』, 1922년 4월 12일자.

100) 『기독신보』, 1922년 11월 29일자.

101) 윤용현, 「금주와 조선의 장래(1)」, 『기독신보』, 1933년 1월 25일자.

102) 이유희, 「우리의 가명과 술」, 『기독신보』, 1928년 10월 10일자.

조선의 경제적 파산의 근본 원인이 유독 술이라고는 못할지라도 조선의 이 낭비와 악패는 오늘날의 민족 전체에 큰 암중암은 틀림없는 일이다. ...우리는 넷것을 청산함과 아울러 다시 새로운 방법을 재출발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라고 보는 바이나 금주를 한다고 금일의 복잡다단한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음주는 이 실정에 잇서서 경제적 도덕적 이 민족의 장래가 암담하는 사실일 것이니 우리가 헛된 생각이 아니라 실제 방면에 잇서서 이 민족에게 술마시는 습관이 업서진다면 먼저 술을 마시지 말아야만 되겠다는 의식만이라도 준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김분이요 갱생의 도약임을 알 수 업는 것이다.¹⁰³⁾

금주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신적 각오의 첫걸음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술값과 담배값에 드는 비용으로 민족을 부강하게 하는 교육에 투자할 것을 역설하였다. 즉 일년 동안 술값에 드는 비용은 구천만 원인데 교육비로는 이천백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채령에서 술값과 담배값에 드는 비용을 실제로 계산해본 결과 매일 술값으로 1,700원, 담배값 2,200원으로 모두 3,900원인데, 이를 빈민 하루 생활비 30전으로 계산하면 매일 900명이 살 수 있고 매일 3,900원씩 계산해서 일년이면 1,044,000원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중등학교 세 개를 세울 수 있다고 했다.¹⁰⁴⁾

이처럼 기독교 여성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암담한 민족의 현실속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좌절감에 빠진 한국인들에게 금주금연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서 민족의 앞날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술과 담배에 드는 비용을 민족의 실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에 투자하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즉 기독교 여성들이 전개했던 금주금연운동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둘째는 공창폐지운동을 들 수 있다. 이 공창폐지운동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연합회의 중요한 운동 가운데 하나였다.¹⁰⁵⁾ 근대 공창제도는 성매매의 영업장소를 일정 지역으로 제한하여 성병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등을 관에서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유린을 합법화한 제도였다. 이러한 공창제도는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하여 이후 유럽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으며, 일본에서도 19세기 중반에 도입하였다.¹⁰⁶⁾

이러한 공창제도가 한국에서 실시된 것은 일제 강점 이후의 일이었다. 한국에서는 유사 이래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전업으로 한 적은 없었다. 예를 들어 기생, 은근자, 삼패, 색주가, 사당패, 유랑유녀 등으로 불리는 성매매 관련

103) 면려생, 「금주 즉 활로」, 『기독신보』, 1930년 4월 30일자.

104) 변영서부인, 「금주의 필요」, 『기독신보』, 1929년 6월 12일자.

105) 이효덕, 「공창폐지」, 『기독신보』, 1934년 4월 25일자.

106) 송연옥, 「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 도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4~5; 일본 내무성 대경시였던 川路가 프랑스인 법학자 Boissonade의 조언을 받아 유럽식 공창제도를 도입하였다.

여성들이 있었지만¹⁰⁷⁾ 주로 부업이었지 전업은 아니었다.¹⁰⁸⁾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여성들이 한국에 등장하게 된 것은 1876년 개항 이후였다. 이때 부산, 원산, 인천 등지가 개항장이 되고, 서울, 평양 등지가 開市場이 됨으로써 다수의 일본인이 들어오면서 일본인 매춘 여성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 초기에 일제 당국은 성 매매 행위가 배일사상을 고취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이를 단속하였다. 그러나 1878년 도항조건이 더 간편해지자 도래하는 일본인들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춘 여성들도 증가하였다. 매춘업이 갈수록 성행하자 부산과 원산에서는 1881년 ‘貸座敷營業規則’, ‘藝娼妓取締規則’, ‘徵毒病院規則’, ‘徵毒檢査規則’ 등을 제정하여 영업구역을 한정하고 일본국내에서 시행하는 매춘관리법을 기준으로 성매매를 관리하였다.¹⁰⁹⁾

청일전쟁을 계기로 도래하는 일본 군인, 군속, 민간인 등이 증가하면서 일본인 거류지가 확정되자 매춘업은 더욱 확대되어 본격적인 유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유곽이 처음 형성된 곳은 부산이었다. 1902년 부산에서는 요리점 영업을 거류지 밖에 한해서 허가하고 거류민단이 매입한 유곽 예정지에 각 영업자를 이전시켜 미도리마찌(綠町) 유곽을 설치하였다. 부산에서 유곽이 설치되자 즉시 다른 도시의 일본인 거류지로 전파되었으며,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인이 거주하던 모든 거류지에 유곽이 설치되었다.¹¹⁰⁾

을사 조약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자 조선인 성매매 관련 여성들도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1908년 9월에 경시청령으로 ‘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을 발포하고 그 직후인 10월 1일 경찰처별령을 내려 제1조 1항에 밀매음 금지 규정을 넣어 사창 단속도 겸행하여 공창제도를 구체화시켰다.¹¹¹⁾ 통감부 권력하에서 본격적으로 착수된 조선인 매춘부에 대한 공창화 정책은 강점 후 각 도 경무부가 인계하여 추진하였다. 무단통치 정책에 의해 경찰 권력의 강화를 도모한 당국은 ‘일반의 풍기 긴숙’이라는 의도하에 매춘부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주로 성병 검사 실시와 사창 단속이었다. 전국적으로 매춘 단속을 했지만 각 도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1916년 경무총감부령 제4호로 발포된 ‘貸座敷娼妓取締規則’이 시행되면서 통일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宿泊營業取締規則’(제1호), ‘料理店飲食店營業取締規則’(제2호), ‘藝妓 酌婦 藝妓置屋 營業取締規則’(제3호)도 발포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숙박소, 요리점, 음식점, 貸座敷의 구별과 예기, 작부, 창기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공창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하였다.¹¹²⁾ 규칙 발포후 각 도 경

107) 강정숙, 「대한제국, 일제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公娼)제도의 도입」(『서울학연구』 11호, 서울학연구소) p.199.

108)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일지사, 1996) p.443.

109) 송연옥, 앞의 논문, p.8.

110) 야마시다 영애, 「식민지 지배와 공창제도의 전개」(『사회와 역사』 51, 1997) pp.148~149.

111) 위의 논문, p.156.

무부는 대좌부 영업지역을 지정하였다.

공창제도하에서接客업주와接客업부 수는 점점 늘어났으며¹¹³⁾ 조선 사회에 성매매를 만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근대공창제도의 특징은 강제성병검진제도와 인신매매를 마치고 경영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근대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¹¹⁴⁾

조선 여성들이 매춘 여성화하는 경로는 대개 소개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공창제도가 시행되고接客업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소개업자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업자층에는 부모나 본인을 속여서接客업자에게 팔아 넘기는 자도 있었다.¹¹⁵⁾ 식민지하에서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매춘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매춘 여성이 되기 전에 이들은 가사돌보기, 음식점 종업원 그리고 기혼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조선에 있는 소위 『인육장사』라는 기생 창기 작부 등의 총수가 삼천오백팔십팔명이고 ... 그 출신으로 보면 처녀로 있다가 발을 드러노흔 사람이 일천이백명 출가했다가 버림을 받은 여자가 칠백삼십육인 농업하는 여자가 오백사인이라 한다.¹¹⁶⁾

이 기사와 같이 매춘 여성이 되기 전에 이들은 대부분 버림받은 여자, 농촌여성들, 그리고 처녀들이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은 거의 절대적 빈곤이라고 할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¹¹⁷⁾ 따라서 일제의 공창제도 실시는 여성의 성을 사고 팔아도 된다는 것을 용인한 것이기 때문에 매춘 여성들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제도가 공인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경한 비판을 가하면서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더들은 도깨 말하면 우슴을 팔고 노래를 팔아 산다하지만 실상은 몸을 팔고 정조를 팔고 있는 것이니 곳 생명을 팔고 영혼을 파는 것이다. 세상에 엇지 이에 서 더 죄악된 일이 잇스며 이에서 더 비참한 일이 어데 잇스라 진실노 더들은 무서운 죄사슬에 얽매여 참혹한 노예생활을 하며 현세에 잇서서 지옥생활을 하며 인생으로 禽獸적 생활을 하는 것이다.

문명이 널리 보급된 오늘날에 잇서서 오히려 이러한 노예제도 밋헤 이러한 노예생활을 하는 것이 실노 괴이하고도 可驚할 일이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의 빛이 고루고루 퍼

112) 위의 논문, pp.160~162.

113) 위의 논문, p.168.

114) 송연옥, 앞의 논문, p.4.

115) 야마시다 영애, 앞의 논문, p.175.

116) 사설, 「창기와 인도문제」, 『기독신보』, 1928년 11월 28일자.

117) 배의남, 「카페의 위험」, 『기독신보』, 1933년 5월 31일자.

지어 있는 현대에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지옥생활 금수적 죄악생활이 공행되는 것은 진실로 용허할 수 없는 일이요 모른데 못본데 할 수 없는 일이다.¹¹⁸⁾

그리고 매춘 여성들의 성병을 검사하기 위해 공창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총독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비판하였다. 즉 성병은 육안으로 검사할 수 없으며, 만일 검사한다 하더라도 10시간 이상은 걸리고 일주일에 한번 검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현실성없는 성병검사를 위해 매춘 여성들을 일정지역에 가두어 두는 공창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성병검사보다는 오히려 포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주제도하에서는 성병에 걸리더라도 마음대로 쉴 수 없으며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했다.¹¹⁹⁾

이외에 공창제도가 노예제도가 아닌 자유영업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비판하였다.

何故로 明治五年에 支那人奴隸問題에 關聯하야 娼妓開放令을 出하엿는가 그제나 오늘날이나 큰 相違가 업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公娼制度는 決코 노예제도가 아니라는 말을 모든 點에서 反對할 수 잇스니 이는 明治 初年에 定하 일인대 卽金錢에는 貸借가 되고 營業은 自己가 슬리면 自由로 廢業한다하며 그 借金은 民法에 屬하니 娼妓의 營業과 貸借關係는 別問題라고 宣言하나 果然 自由廢業을 할 수 잇슬가 만일 한다하면 경찰은 自由廢業하는 者의게 동정을 하야 할 것이나 지금 경험으로써 보면 창기가 職業을 廢하는 境遇에는 경찰은 언 지던지 樓主의게 同情을 하고 창기의 自由 폐업을 妨害하는 態度를 取하니 법률상으로는 얼마큼 自由가 잇더라도 더들은 自由를 가지지 못하엿습니다. 政府에서는 아모리 自由廢業이라 하어도 그는 일흠뿐이요 實際는 될 수 업느니 그럼으로 우리는 人道라는 것을 생각하야 公娼制度라는 것을 보면 불합리한 點이 僻만흔 줄압니다....¹²⁰⁾

가령 총독부의 주장처럼 공창제도가 성병의 만연을 방지한다고 해도 약 78만의 한국 여성의 정조를 유린하는 이러한 제도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¹²¹⁾

기독교 여성들도 조선역사상 이러한 인권유린적인 공창제도가 없었는데, 일제의 정책으로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고 비판하면서¹²²⁾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제도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제안했다. ① 계몽운동에 앞장서자는 것이었다. 공사창을 찾는 남성들에게는 매춘 여성들이 모두 자신의 여동생, 부인으로 대우하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하여 이러한 곳을 찾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몽시

118) 「창기와 인도문제」, 『기독교신보』, 1928년 11월 28일자.

119) 安部磯雄, 「廢娼運動에 就하야」(『신학세계』 제10권 제 3호, 1925) pp.85~86.

120) 위의 글, p.87.

121) 위의 글, p.87.

122) 이효덕, 「공창폐지」, 『기독교신보』, 1934년 4월 25일자.

키고, 매춘 여성들에게는 사람된 권리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 가르쳐 인간의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몽시키자고 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올바른 성지식을 가르쳐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식들을 공사창에 파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자는 것이었다.¹²³⁾ ② 공사창 폐지를 위해 모두 단결하여 싸워나가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성들을 오락 패물로 알고 농락질하는 못된 버릇을 버리고 자기 아내나 자식을 팔아서 주사청루의 누추한 생활을 시키는 일을 하루빨리 떠나자고 촉구했다.¹²⁴⁾

이러한 운동 방침하에 기독교 여성들은 총독부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선전행렬, 선전빠라산포, 강연포스터, 광고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총독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문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계속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사창을 근절시킬 수 있는 계몽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¹²⁵⁾ 이처럼 기독교 여성들은 민족 차별과 성차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공장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민족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것이다.

세 번째는 합리적인 소비절약운동을 들 수 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여성들이 전개했던 절제운동의 중심은 금주금연운동에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이후 매춘 여성들이 종사하는 음식점과 술집이 다른 형태로 확대되자 매춘 여성들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였다. 즉 카페라는 곳에서도 매춘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¹²⁶⁾ 이에 기독교 여성들은 공사창폐지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이 운동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이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절제운동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여기에 합리적인 소비절약운동도 포함되었다.

기독교 여성들은 시간의 절제, 의복의 절제, 음식의 절제 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절약을 강조하였다.¹²⁷⁾ ①시간의 절제를 강조한 것은 실력양성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간이란 과거 원시공동체사회나 고대사회에서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사고했지만, 중세 이후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도시가 생기자 시간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었다. 즉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상대보다 좀 더 좋은 조건,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가 필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세 이후부터 시간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시간의 관리는 더욱 가속화하였다.

따라서 시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상대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기독교 여성들은 실력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시간의 절

123) 이효덕, 「실제적 방침으로」, 『기독신보』, 1934년 8월 29일자.

124) 위의 글.

125) 위의 글.

126) 배의남, 앞의 글.

127) 장정심, 「가정과 절제」, 『기독신보』, 1931년 10월 28일자.

제를 호소했다. 시간의 절제는 실력양성과 연결되며, 이 실력양성은 민족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라고 파악했던 것이다.

②의복의 절제를 주장했는데, 한국의 전통의상은 보기에선 좋지만 입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여성들이 여가를 낸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옷을 한번 입고 세탁하려면 옷을 전부 분해하여 땀 후에 다시 재봉하여 옷을 원상복구시켜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며칠동안 꼼짝없이 매달려야 했다. 당시 한국의 여성들 대부분은 낮에는 길쌈을 하고 밤에는 옷손질 등으로 잠잘 시간조차 없었다. 여성들이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여러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데 집안일에 얽매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독교 여성들은 여성들이 가정에서부터 혁신하지 않으면 넓은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의복의 절제를 주장했던 것이다. 의복은 가능하면 색의를 입고 다듬지 않도록 하고 자녀들의 의복도 간단하게 만들어 입히자고 호소했다. 즉 여성들을 가사 노동에서 조금이라도 해방시키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했다.¹²⁸⁾ 이는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민족문제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깨어야 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③음식의 절제를 주장했다. 먼저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먹고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음식을 먹자고 주장했다.

밥 한그릇을 먹어도 법대로 먹읍시다. 무턱대고 고기만 먹으면 좋아하는 생각으로 돈을 많이 드려 고기만 먹은 후에 단백질이나 지방과다증이 생기어서 약사먹으러 다니기에 분주한 이러한 비과학적 생활을 내어 버립시다.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살 수 잇는 무나 배차에도 얼마나 한 큰 양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살아가읍시다.¹²⁹⁾

건강과 합리적인 음식의 절제는 기독교 여성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인격 완성과 연결되는 사고였다. 개인의 인격 완성은 지, 덕, 체를 겸비한 인간을 가리키는데 사회 구성원 하나 하나가 이러한 개인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분명 실력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들은 “만일 개인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의 생명은 폐쇄하게 되어 마침내 쇠멸되고 말며 민족으로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민족의 생명은 쇠퇴되어 마침내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¹³⁰⁾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음식의 절제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운동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다.

네 번째는 아편 추방운동을 들 수 있다. 이는 전술한 운동과 함께 조선여자기독교절제

128) 『기독신보』, 1928년 12월 5일자.

129) 『기독신보』, 1928년 12월 5일자.

130) 『기독신보』, 1932년 2월 3일자.

회 연합회가 창립된 초기부터 꾸준히 전개된 운동이었다.¹³¹⁾ 한국인들이 아편을 처음으로 소비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영향 때문이었으며, 주로 접경지역인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밀재배가 이루어지거나 밀수입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아편의 만연이 국제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식민지 지배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여 단속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차세계대전의 발발로 이러한 일제의 조선에 대한 아편 정책은 그 방향이 바뀌었다. 이와 같이 그 정책이 바뀐 것은 그동안 일제가 그들의 취약한 경제력을 보충하기 위해 러일전쟁으로 식민지화한 대만과 관동주에 실시하던 아편 전매정책이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는 아편전매정책으로 식민지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했기 때문이다. 일제는 아편을 이란, 터키 등에서 수입하여 대만과 관동주에 판매하였다. 만일 대만과 관동주에서 아편을 재배하게 되면 밀매매가 성행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아편의 가격이 폭등하자 아편 소비가 거의 없던 조선을 재배지로 주목하게 되었다.¹³²⁾

그리하여 일제 당국은 1919년 조선아편단속령 동시행규칙을 발포하여 앵속재배의 허가, 총독부 아편매상제도를 시행하여 이를 大正제약주식회사에 불하하여 마약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했다.¹³³⁾ 그런데 1차세계대전이 예상외로 일찍 종전되자 마약 가격은 다시 하향하여 조선에서 생산되던 아편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러자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마약을 생산하던 大正제약주식회사는 타격을 받아 매년 손실이 누적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밀매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大正제약주식회사의 아편 밀매는 조선내에 아편중독자를 심각할 정도로 증가시켰으며, 그리고 일본 내지에서 생산된 마약도 역시 약종상이 수입하여 조선에 공급함으로써 아편 중독자를 증가시켰다. 아편중독자가 증가하게 된 것은 또 하나 일제 총독부의 마약관련처벌법이 관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1920년대 마약에 관한 조선에서의 관대한 처벌과 大正제약주식회사의 해외 판매부진 등은 조선내 마약중독자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당시 경기도 이남지역만 하더라도 그 수가 1만명이 넘는다고 하였다.¹³⁴⁾

1931년 만주사변 발발 이후 일제 당국은 다시 조선을 아편공급지로 주목하였다. 만주국에 판매하는 아편에 대해서는 그 지역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準외부공급방식」이 채택되었다. 그 주목지역이 한국이었다. 한국이 주목을 받은 것은 감시 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 아편 흡연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주된

131) 『기독신보』, 1930년 8월 27일자.

132) 박강, 「조선에서의 일본 아편정책」(『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1998) p.321.

133) 만철경제조사회 제5부, 『조선아편마약제도조사보고』, pp.3~4; 박강, 위의 글, p.312 재인용.

134) 박강, 앞의 논문, pp.313~321.

이유였다. 만일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아편 밀매를 단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경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일제는 만주사변직후 한국을 아편 공급지로 삼았다.¹³⁵⁾ 당시 한국인들은 아편에 대해 잘못 인식하여 사용하는 부류가 있었다. 다음의 기록은 그러한 실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전북 진주는 아편이 었지 만히 류형호는지 부인들이 일흔때에는 그 어린 으회의게 아편 주사를 호야 잠을 들게호고 일을호나 그러나 그들은 강연을 듯고 이런호일을 금지호기로 작 덩호였다.¹³⁶⁾

이외에 성적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회춘약으로 잘못 알고 사용하거나, 혹은 중독의 공포를 알면서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현실을 잊기 위한 현실도피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¹³⁷⁾ 만일 돈이 없으면 도적질을 해서라도 아편 주사를 맞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아편 중독자들이 나날이 확대된다면 조선 독립은 기대할 수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여성들은 식민지 상황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정신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아편 추방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각지를 돌며 아편의 폐해에 대해 계몽 강연을 했다.

기독교 여성들은 일제당국의 아편 매매를 통한 재원 확보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¹³⁸⁾ 아편 추방운동을 통해 아편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아편 추방운동은 곧 일제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이며 민족 독립을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28년 중반을 기점으로 근우회에서 탈퇴한 기독교 여성들은 농촌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 운동에 착수한 배경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교회의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의식 전환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곧 기존의 사회봉사적 차원에 머물던 사회의식에서 민중생활 향상 차원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을 가리킨다. 당시 한국 교회가 ①새로운 사조 유입에 의한 영향 ② 한국 경제의 과

135) 위의 논문, pp.322~323.

136) 『기독신보』, 1924년 12월 24일자.

137) 『기독신보』, 1924년 12월 24일자.

138) 기독교 여성들이 전국 순회 강연을 할 때는 항상 총독부 경관이 임석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강연을 할 수가 없었다. 『기독신보』, 1924년 12월 24일자.

탄 등으로 현상유지에 불과한 침체를 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8년 예루살렘 선교협의회 개최는 한국 교회가 사회문제로 의식을 전환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한국교회의 민주화와 실제화에 대한 인식 전환은 당시 사회 문제의 최대 현안이었던 농촌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했으며, 기독교 여성들은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농촌계몽운동에 착수하게 되었다. 둘째는 기독교 여성들의 농촌여성문제에 대한 재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이 농촌계몽운동에 착수하기 이전에는 도시중심의 여성 지위향상운동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28년 중반을 기점으로 도시중심에서 농촌으로 운동을 확대한 것은 농촌여성문제의 해결이 곧 전 조선 여성의 문제해결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사회주의 진영 여성들과의 운동노선 갈등으로 인한 독자적인 운동 노선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기독교 여성들은 문맹퇴치운동과 민족의식 소생운동, 농촌여성지도자 양성운동, 다른 기독교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운동, 농촌여성들의 생활개선운동 등의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여성들의 농촌계몽운동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쇠퇴하게 되고 그 대신 절제운동의 활성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1932년을 기점으로 기독교 여성들은 농촌계몽운동에서 절제운동의 확산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일제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으로 인한 기독교 여성들의 농촌운동 쇠퇴를 들 수 있다. 즉 농촌운동 쇠퇴로 인해 새로운 운동을 모색한 결과 나타난 것이 절제운동의 활성화였다. 둘째, 1928년 중반 이후 다시 전개된 사회주의자들의 제2차 반기독교 운동과 1930년대 초반 신비주의적 소종파운동의 발흥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1932년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가 “사회신조”를 채택함으로써 기독교 여성들의 절제운동이 활성화하였다. 셋째는 1930년대초 도시화의 발달을 들 수 있다. 도시화의 발달은 퇴폐문화의 확대를 야기하였으며, 이것은 기독교 여성들이 주도하던 절제운동을 활성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시작된 절제운동의 활성화 방향은 금주금연운동, 공사창폐지운동, 합리적인 소비절약운동, 아편 추방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이 운동들은 모두 민족운동과 여성운동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기독교 여성들은 근우회 탈퇴 이후 농촌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이 운동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운동을 계승하여 전개한 것이 절제운동의 활성화였다. 절제운동은 1937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기독교 여성들이 전개했던 민족운동이자 여성운동이었다. 이후 기독교 여성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으로 나아갔다.